



<인구 5만 옥천> 청년이 구상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키다

옥이네

전교생 18명 중학생 상대로 6주간 2번 10만 원 지급한 청소년 기본소득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해 사용일지를 통해 소비패턴 분석, ‘자존감, 연대의식’ 도출 기본소득 논의 황무지였던 농촌에서 기본소득 논의 활활, 정책화 가능성도 비춰

충북 옥천에선 기본소득 논의가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옥천지역 청년모임 Too가 서울시 청년허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안내중(전교생 18명)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것. 무조건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지급된 이번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은 활자에 그쳤던 기본소득 논의에 생기를 부여했다. 안내중 전교생은 2회에 걸쳐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았다.

이번 실험은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 관련 공론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두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책화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번 편을 통해 인구 5만, 옥천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공간, 농촌, 그리고 청소년

안내중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은 지역 커뮤니티 청년모임 Too(단체 소개는 인터뷰 참고)가 주도했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기본소득 인식이 많이 확산된 시기에 지역 청년들이 직접 나서 기본소득 논의의 물꼬를 터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행됐다. 실험 이전, 옥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여론화는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청년모임 Too는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가 40%(옥천군 2019년 사회조사 관련 자료 참조)가 되는 농촌이야말로 기본소득 논의가 가장 시급한 공간이라고 인식했다.

“가구가 가난하면 가구 구성원도 가난하죠. 하지만 청소년이 얼마나 빈곤한지 조사된 바조차 없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은 꿈도 못 꿀 상황이죠. 결국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존중받아야 할 구성원이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 봐요”(박누리).

결국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농촌 공간은 청소년에게 ‘떠나고 싶은’ 장소가 될 뿐이다. 청년모임 Too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기본소득 실험은 그 일환이었다. 가구 단위로 집행되는 정책이 아닌, ‘조건 없이’ ‘모두에게’ 시행되는 정책은 청소년 개개인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옥천신문> 황민호 이사는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에서 지원하는 ‘n개의 공론장’ 사업을 추천했고, 청년모임 too는 기본소득 실험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년모임 too 멤버로 활동하고 있던, 사회적기업 고래실의 박누리 편집국장의 협조로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총 6주간 지역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3주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충전식)로 지급하고, 그 과정과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이 사용하면서 느낀 기본소득의 경험을 공유해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구상하고, 꼼꼼하게 기록한다. 의미는 ‘함께’ 해석한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기획은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됐다. 약 3주간 회의가 이뤄졌고, 대상은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에 있는 안내중학교로 선정됐다. 안내중학교는 전교생 18명의 작은 학교다. 안내중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1) 작은학교로서 같은 지역의 또래집단 전교생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 2)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 3) 면지역 학교로서 읍면소비 불균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지역화폐카드) 등이 꼽혔다.

실험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는 작업도 병행됐다. 기본소득 일지다. 기본소득을 받은 청소년들은 소비날짜마다 오늘 쓴 내용에 대해 글, 사진, 그림 등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1)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2)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했던 생각, 새롭게 알게 된 사실 3)기본

소득을 사용한 오늘 하루의 생각 4)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5)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등의 질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 기본소득이 청소년에게 선물한 ‘자존감’, ‘연대의식’, ‘자율성’

청소년들이 말한 기본소득의 효과는 단지 6주간 돈을 더 받았다는 신선한 경험을 넘어섰다.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번 실험이 ‘관계의 평등’, 나아가 ‘독립’을 가져다줬다며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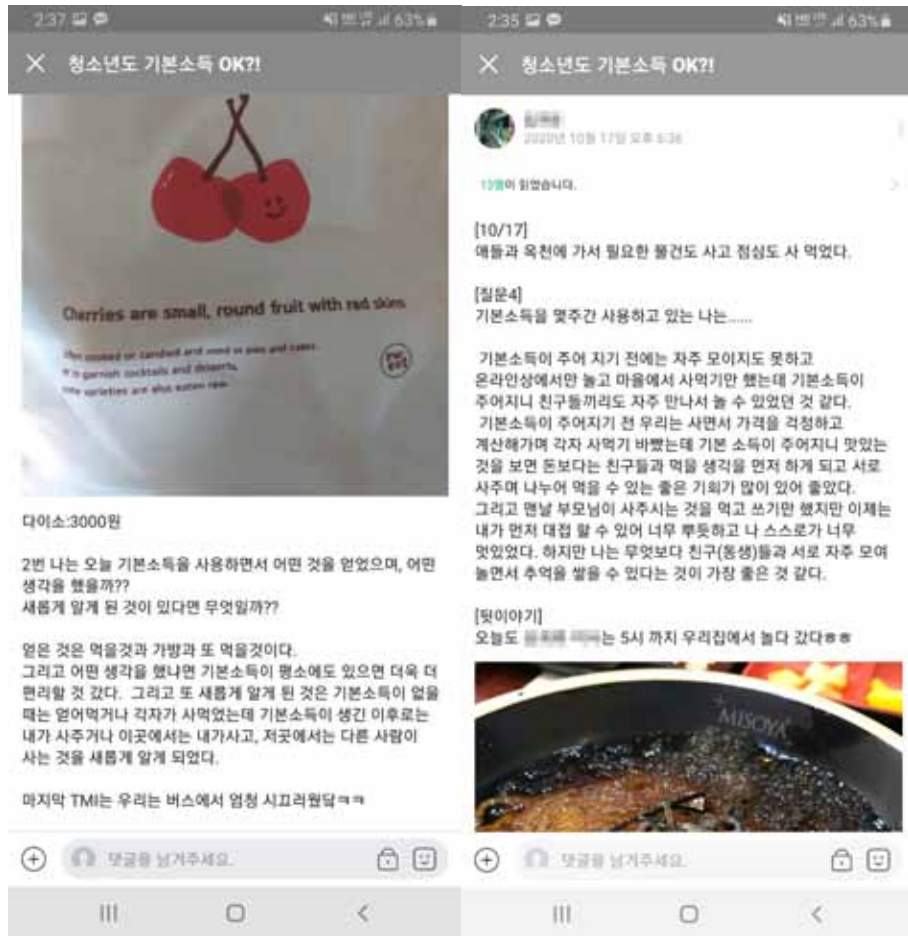
청년모임 Too가 만든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안내중학교 김가은 학생은 “기본소득은 용돈과 달라서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었다”며 “집에서도 아빠와 할머니에게 대접하고 돈을 사용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는 후기를 털어냈다. 노승희 학생 역시 “기본소득은 공적으로 주어진 돈이라 사용처를 부모님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유사한 맥락으로 박소선 학생은 “제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 기본소득은 청소년에게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자신의 몫이었다’라는 답변은 그간 소비 권한이 사실상 청소년에게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용돈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즉 권력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여태껏 청소년들은 성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기본소득은 이로부터 청소년을 자유롭게 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실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청소년기본소득 공론장에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한 인근 학교 최서영 학생(옥천고)은 “규제가 많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싫어하는 게 용돈 제한”이라며 “어른들이 보기에 중요하다는 가치도 있지만 청소년에게겐 옷이나 필기구, 폰 케이스가 관계에서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청소년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연대의식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간 경제적 차이(용돈)에 따라 같이 놀고 싶어도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 있었다는 것. 학생들은 용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또래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면서 소비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사용처가 옥천 지역 내로 제한되다 보니, 원하는 재화를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온라인으로도 못 쓰고 대전에서도 못 써요? 그럼 쓸 데가 없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다. 실험 후에도 ‘제빵사가 꿈이라 제빵 도구를 사고 싶었는데, 지역에서는 내가 찾는 도구를 구할 수 없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실험 이후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구석구석 찾아가 보게 되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



다라는 평가도 있었다. 학생들은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지역 상권을 검색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 구매하는 경험을 했다. 청년모임 Too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경험과 추억은 청소년과 지역을 이어 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론장으로 영역을 넓혀나간 옥천 기본소득 실험. ‘그게 뭐야’에서 ‘해볼만 하네’까지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유익한 결과를 도출한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은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 논의 확대를 촉매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기본소득 실험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작가 오준호씨를 불러 기본소득 관련 강의를 주민들이 함께 듣기도 했고, 기본소득 실험을 종료한 11월에는 지역정치인, 교사, 마을주민,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공유(결과보고서)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을 옆에서 지켜본 주민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응답했다. 지역교사 오정오씨는 “처음에는 기본소득이 소비에 방점을 찍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직접 과정을 살펴보고 결과를 들으니 기본소득 실험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는 걸 느꼈다. 청소년 기본소득은 청소년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작업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내중 학교에서 실험에 함께 참여한 문정식 교사는 “실험에 참여하며 학교가 해야 할 일을 지역사회에서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작은 규모라도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당일 공론장에 참여한 지역정치인들은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이 정책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도의회 박형용 의원은 “청소년기본소득의 개념은 들어봤지만, 사실 근처에서 실험을 하게 되니깐 더 와닿았다”라며 “기본소득을 공부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답했다.

민간영역에서 시작된 실험을 지자체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군의회에는 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청소년이 ‘자체적’으로 존중받는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은 “실험을 살펴보면서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새로운 개념이었는데, 토론회까지 진행하면서 청소년 기본소득의 의미와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공감과 연대의 밑바탕이죠.”

: 옥천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청년모임 ‘TOO’를 만나다

옥천에서 청소년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한 청년모임 Too(touch of okcheon).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연대의 경험을 다른 세대와 공유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 세대와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세대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가 이번 실험을 계기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해당 모임의 상징은 ‘달팽이’다. 느리지만, 꾸준히 가자는 의미다. 지난달 23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 있는 카페 ‘토닥’에서 박누리(37, 『월간옥이네』 편집장), 이종효(34, 카페토닥 사장), 이해수(30, 《옥천신문》 시민기자)씨와 만나 청년모임 Too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지역(옥천) 공동체’다. 타 지역에서 살다가 옥천에 기자로 첫발을 들인 누리씨, 옥천 청년이지만 타지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종효씨와 해수씨. 이들은 옥천에 살고 있는 청년이다. 혹자는 묻는다. 당장 도시에서도 앞길이 막막하다는 세대인 ‘청년’들이 어떻게 농촌으로 돌아와서 타인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받았던 좋은 경험들이 계기가 됐다’라고 말이다.

“고향은 구미고, 학교는 대전에서 다녔어요. 대도시에서 공간은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곳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역에서 신문기자를 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주체가 되는 거죠”(박누리).

그렇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들의 문제에만 주목하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빈곤, 불평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첫 프로젝트는 착한마을카페였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분	기본소득 지급 전	기본소득 지급 후
사용 패턴	개별적 사용	공동체적 사용
사용처	온라인	지역 가게
소비 주체	부모님께 허락/각자 알아서 사용	각자 알아서 사용/부모님께 제공
놀이 패턴	만나서 스마트폰 사용	만나는 횟수 증가, 대화 증가
소비감정	눈치 보임	자유로움, 일부 눈치 보임

옥천에서는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마땅치 않아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복도를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모임에서는 지역 곳곳을 헤매는 청소년을 위해 지역카페와 협약을 맺었다.

“3천 원짜리 커피를 사장이 1천 원, 커뮤니티에서 1천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청소년은 3천 원 커피를 1천 원에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 등 청소년이 지역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이해수).

지역사회 인구 10명 중 4명이 100만 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인 곳, 농촌. 이런 공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른다. 관심이 높아졌지만, 당장 멀리 있는 어젠다처럼 보였다.

“정치적으로 전국민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데, 당장 농촌에선 기본소득에 대한 단어도 낯설었고요. 정치 의제 이상이 아닌 거죠. 그걸 어떻게 실생활로 끌어 내릴까 고민을 시작했어요.”(이종효)

그렇게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여러 번 지속됐고, 좋은 기회로 청소년 기본소득 논의와 실험의 기회가 주어졌다. 실험을 구상하고, 공론장을 열어냈다. 물론 기본소득이 마련할 ‘연대’가 또 다른 좋은 ‘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였다.

“청소년 기본소득은 꼭 필요해요. 학교라는 공간은 처음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느끼는 차별은 그 사람의 잘못처럼 느껴지고, 결국 그런 경험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사회가 ‘연대’의 손길을 내민다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으로 지지받는 거죠. 저는 지금 청소년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자라난 청년이 되길 바라요. 사실 저희도 연대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박누리).

이처럼 기본소득 논의는 청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제가 됐다. 이들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본소득, 그리고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꿈꾼다. 그뿐 아니다. 선한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낳는 사회를 위해 도전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함께 유쾌했던 청년모임 Too. 싱그러운 봄처럼 이들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 운동은 왠지 목표도 과정도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